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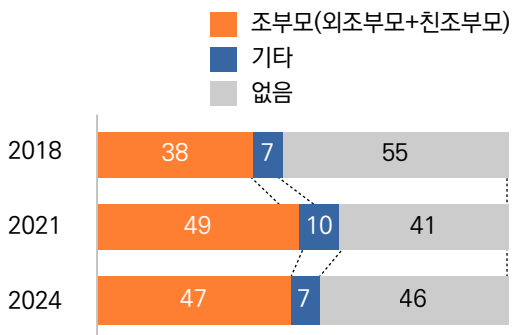


[노인의 손자녀 돌봄 실태]

부모 외 자녀 양육 도움자, 1위 조부모(47%)!

- 우리나라 전체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국가데이터처* 자료 기준(2024년) 48%이며, 한창 아이를 키우고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할 연령대인 30대의 경우 62%에 달한다. 이들에게는 자신 이외에 아이 양육에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하다.
- 2024년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 외 양육에 도움을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은 조부모(47%)로 나타났다.
- 한편, 50세 이상 중년기와 노년기 성도를 대상으로 손주 양육/교육에 대한 관심 정도를 묻은 결과, 10명 중 7명(69%)이 '관심 있다'고 응답했으며, 특히 65세 이상(노년기)은 80%의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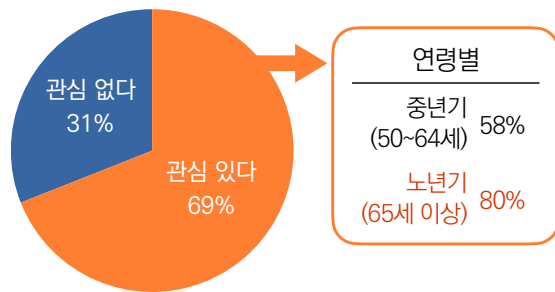
[그림] 부모 외 아이 양육에 도움 주는 사람
(영유아 부모, %)



※출처 : 교육부/육아정책연구소,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, 2024.12.
(영유아를 둔 2494가구, 면접조사, 2024.08~2024.12.)

*맞벌이 가구 출처 : 국가데이터처,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
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, 2025.06.19.

[그림] 손주 양육/교육 관심도**
(50세 이상 중년기/노년기 응답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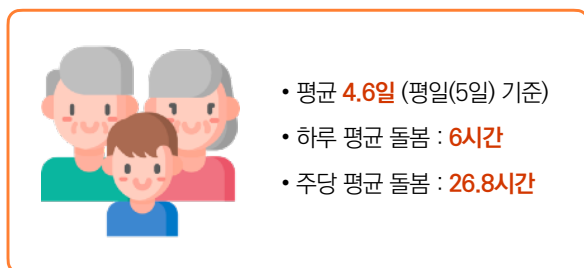
※출처 : IFCJ가정의힘, '개신교인의 가정 신앙교육 및 생애주기 교육 조사', 2024.09.(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926명, 2024.02.22.~03.29.)

**4점 척도

손자녀 돌봄 조부모, 하루 평균 6시간 아이 본다!

- 그렇다면 실제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조부모들의 현실은 어떨까?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'노인의 손자녀 돌봄 실태조사 결과'를 발표했는데, 주요 결과를 살펴본다.
- 지난 6개월간 주당 15시간 이상 만 10세 미만 손자녀를 돌본 경험이 있는 만 55~74세 조부모 106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본 조사에서 조부모들은 평일 기준 4.6일로 주말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 손자녀를 돌보고 있었으며, 하루 평균 6시간가량,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은 약 27시간이었다.

[그림] 손자녀 돌봄 현황 (10세 미만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만 55~74세 조부모 중 주당 15시간 이상 돌보는 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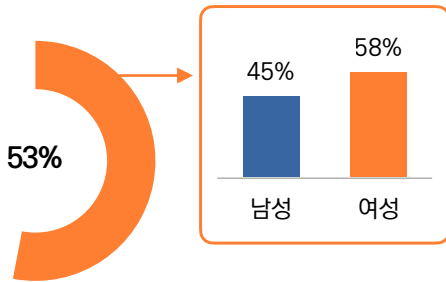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도자료, 가족 내 손자녀 돌봄 현황과 정책방안 연구 결과 발표, 2026.05.08. (노인의 손자녀 돌봄 실태조사, 지난 6개월간 주당 15시간 이상 만 10세 미만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만 55~74세 조부모 1063명, 온라인 조사, 2025.07.28.~08.18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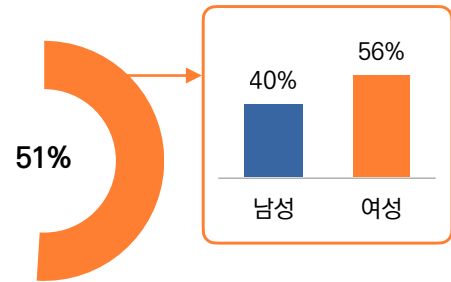
손자녀 돌보는 조부모 절반 이상, 자신은 원치 않는 ‘비자발적 돌봄’ 경험

-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절반 이상(53%)은 본인은 원치 않지만, 자녀 사정으로 손주를 돌봐줘야 하는 ‘비자발적 돌봄’을 경험했고, 손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등 다른 가족 구성원까지 함께 돌보는 ‘다중 돌봄’ 부담을 겪고 있는 비율도 51%였다.
- 비자발적 돌봄과 다중 돌봄 경험률 모두 ‘여성’이 ‘남성’보다 높게 나타났다.

[그림] 본인(조부모)이 원치 않는 비자발적 돌봄을 하는 비율
(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만 55~74세 조부모)



[그림] 다중 돌봄 부담 경험 비율
(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만 55~74세 조부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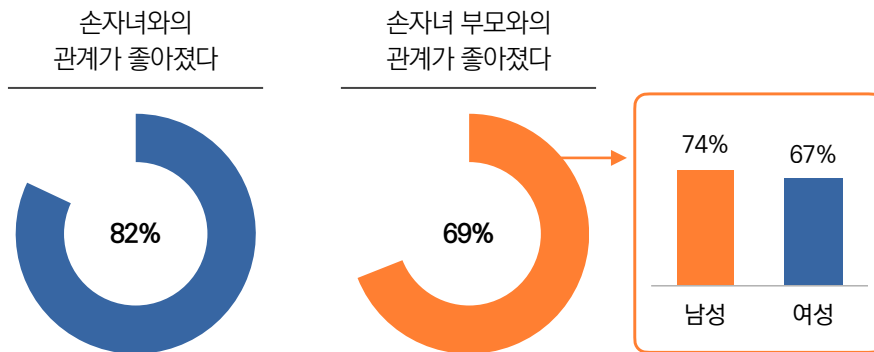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도자료, 가족 내 손자녀 돌봄 현황과 정책방안 연구 결과 발표, 2026.05.08.(지난 6개월간 주당 15시간 이상 만 10세 미만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만 55~74세 조부모 1063명, 온라인 조사, 2025.07.28.-08.18.)

손자녀 돌봄의 긍정적 영향, ‘손자녀와 관계 좋아졌다’ 82%!

- 손자녀 돌봄은 가족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? 조부모의 82%는 ‘손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졌다’고 응답했고, ‘손자녀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졌다’도 10명 중 7명(69%)뿐이었다. 특히 ‘손자녀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졌다’는 응답은 ‘남성’(74%)이 ‘여성’(67%)보다 높아, 손자녀 돌봄의 긍정적 효과는 남성 노인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[그림] 손자녀 돌봄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(‘좋아짐’ 비율*,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만 55~74세 조부모)



※출처 :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도자료, 가족 내 손자녀 돌봄 현황과 정책방안 연구 결과 발표, 2026.05.08.(지난 6개월간 주당 15시간 이상 만 10세 미만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만 55~74세 조부모 1063명, 온라인 조사, 2025.07.28.-08.18.)

*3점 척도 (좋아짐, 변화없음, 나빠짐)